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오는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제정 제65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4천여년 동안 군주국이었고, 그 다음 1935년은 제국주의 일본에 지배 당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48년 7월17일 건국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 기까지는 미군정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념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지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건국 헌법으로서의 우리 헌법은 민주적 정당

제헌절, 대한민국 탄생을 회고한다

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내용면에서 목적이 정당성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이 있는 주요 건국 인물에게 마치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 한다. 분단의 책임은 UN의 남북한 총선을 거부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지 남한의 우익세력에 있지 않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미, 영, 소)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독립국가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 미, 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협의에 아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을 길게는 5년동안 미, 영, 소, 중 4개국이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는 1946년 1월 15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입법과 신탁통치안 등을 내놓았으나 국내에서의 반탁운동에 봉착했고, 3월 20일 1차 회의, 1947년 5월 21일 열린 2차회의 역시 미,

소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 없이 결렬되었다. 이로써 남북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사실상의 분단이 확정된 셈이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시켰고, UN은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다음 UN임시한국위원회(UNTCOK)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은 UN한국위원회 입북을 거절하고 총선을 거부하였다. UN은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5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원래 의원 정족수는 298명이었으나,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지역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하고 198명만이 5.10선거에서 선출되어, 이들 198명의 의원으로 역사적인 제헌 국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기반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소련의 남북한 총선반대는 당연하다. 소련의 이런 계략을 간파한 이승만은 1946년 3월 1

차 미소공동위가 무산되자, 6월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을 강력히 전개하고, 1946년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야에 이와 같은 단독정부 주장을 퍼뜨려 모비활동을 하였다.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유진오의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령의 안을 참고해 심의, 1948년 7월 12일 통과시키고 조선헌법 건국일인 17일에 공포 발표시켰다. 헌법은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무위원 제도를 두어 내각제 요소도 가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제정의 역정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탄생한 국가로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세계10대 교역국에 들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김일성 3대 우상화에 빠져 인권 없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발언대

'아시아나 사고기 영웅들' 그들은 보살이었다

7월 7일 발생한 아시아나기 센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련 와중에도 인명 피해를 최대한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12명의 객실 승무원들 때문이었다. 특히 외신들은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비상 상황을 가장한 반복된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활약했다.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비상구 주변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상황 발생시 착륙 상태를 점검한 뒤 탈출구 위치를 확인하고 승객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도 최종적으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로소 기내 밖으로 몸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현지 소방 당국도 "승무원들이 대형 참사를 막은 영웅"이라고 칭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배푸는 '현신' 이야말로 세계공통언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 정신이 아닐까. 신중일 기자

아시아나 항공 사고 당시 이윤혜, 최선임 승무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위기 매뉴얼에 따라 구조활동한 것에 대해 외신들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복구하여 운비하는 아시아나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jwp615

안타까운 항공사고 현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의 침착한 구조활동에 대해 세간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들을 도운 이들은 '영웅'이었습니다. @jnhc100

아시아나항공기의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고현장에서 보여진 항공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의 침착한 구조활동에 대해 세간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신의 안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johyunyong0411

항공기 불시착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승객을 끝까지 구조한 아시아나 승무원들 정말 진정한 영웅입니다. @RYUYAN12

아시아나 추락사고, 승객 구조 위해 헌신한 승무원들. 나라의 체면을 살린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ivermo1

"승객들을 신속하게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생명의 위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 사고시 함께 탑승했다가 승객들을 구조한 여승무원들이 인터뷰내용이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hong5603

"아시아나항공 사고 승객 구조위해 헌신한 12인의 승무원들- 이윤혜, 유대식, 이정미, 이진희, 현숙영, 김지연, 홍정아, 한유자, 김윤주, 전수민, 마니나, 시리탑"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자랑스롭습니다. @nzym5971

현장근무자들의 맹활약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아시아나 사고여객기 여승무원의 활약을 박수를 보낸다. 현장근무는 돌파력과 민첩함과 적절한 상황판단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현장근무자 파이팅! @hwp0421

정말 멋지다. 생사가 갈리는데서 남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시아나 승무원들에게 박수를. @Ageha.k

지쳐 쓰러져있는 대한민국을 들쳐 업고 구해줄 사람 누구 없나요. 정말 가슴 찡합니다. 아시아나 승무원 모두 영웅입니다. @lcarus9ok

아시아나 승무원들 동체 불발기직전까지 승객구조, 의무라고 하지만 정말 용감했네요. @thesignify

아시아나 스튜어디스가 생사의 기로에서 승객들을 구해냈다. 참사를 막은 그들의 눈물겨운 구조활동은 진정 소영웅의 모습이었다. 투철한 훈련과 직업에 대한 사명 사리에 대한 인본정신이 맞물린 결과다. 감동을 받았다. 항상 온화한 미소로 함께 해 주시길. @yhs851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벤 레비라는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진 와중에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비상구를 열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kimik5

또한 아시아나 승무원 최선임씨와 승객 '벤 레비' 씨와 같이 본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싸우며 타인을 도와 주신 많은 분들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nyanglee

오늘의 인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현장에서 갈비뼈 부상 중에 50여명을 구한 벤자민 레비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살신성인이란 표현이 이분한테 어울리는 것 같네요. 주변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ydp119

社說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바라보는 '눈'

10월 10일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이제 3개월 남았다. 종단 안팎에서는 7월 8일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의 도박설을 주장한 前 오어서장주님의 일로 자칫 어렵게 조성한 화합선거 문화가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로 이번 장주 스님의 일이 있기 전에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견이 중앙총회와 대불청 등 곳곳에서 제기됐다. 출제가 모두 과거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반복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과열화되던 양상을 벗어나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총무 행정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선거 과정을 보면 금품이 오가거나, 근거 없는 폭로선이 이어지면서 승가의 갈등을 조장하고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도 지난 총무원장 선거때부터 이런 폐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결

은 단일화였다. 지난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불교광장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광장은 화엄광장 및 前 무량회 총회의원, 무소속 중앙총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 모임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단일화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종권 연장을 위한 편법이라고 폄하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총무원장 선거만큼은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분별한 비방과 폭력, 금권, 대관매직 등을 배격하는 올바른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종단 화합과 안정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종단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전의 사표로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도박사건 등으로 위상이 추락된 한국불교를 다시 끌어올릴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불교적인 선거를 기대한다.

부끄럽지 않은 대불련 동문회 기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기념사업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7월 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8월 17~18일까지 예정된 50주년 기념사업에 불참하는 대신 9월 7~8일 서울에서 제11회 전국동문대회를 열 것도 결의했다. 사실상 사업이 두 쪽으로 나뉜 것이니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이 총동문회가 자신의 뿌리인 대불련 50주년 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동문 간 내부 갈등의 요인이 크다. 현재 대불련 동문은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로 분열돼 갈등 중이다. 올해 2월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각시비가 불거졌고, 결국 일부 동문들은 4월 27일 전국동문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전국동문회가 출범하면서

동문 간의 갈등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놓고 이어진 것이다. 양측 동문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동안 애꿎은 대불련 현역 집행부와 실무진만 마고고생 중이다. 실제 박지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2000년대 중앙회장 동문들은 선배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 지성의 상징인 대불련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이 됐는지 알 수 없다. 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단체가 사람들 사이의 반목이 없다는 것은 자체가 어불성실이지만, 후배들 보는 앞에서 '이전투구'는 세속적 표현으로 '모양 빠지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뿐인 대학 시절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편) 8cm]

기반방석 내부

- 메모리폼
- 폴리우레탄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블록이: 해천법사

블록이: 해천법사

블록이: 해천법사

블록이: 해천법사

블록이: 해천법사

블록이: 해천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조선시대 친척,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